10.15686/fkl.2024..62.112 OPEN ACCESS

〈취연전〉의 서사구조와 인물 특성의 의미 연구

정인혁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1 서론
2 〈취연전〉의 서사적 갈등 양상
3 〈취연전〉의 인물 형상화: 전형의 탈피
3.1 주체의 양면성과 非善
3.2 이중적인 원조자와 반주체로서의 적대자의 非惡
4 〈취연전〉의 미학: 새로운 인물의 탄생과 生의 欲動
5 결론

〈취연전〉은 〈정을선전〉으로부터 파생된 이본으로 여겨졌지만, 남주인공이 아닌 여주인공 중심의 서사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들 작품 간의 관계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더욱이 이는 가정소설의 두 갈등 유형, 곧 계모와 전실소생 간의 갈등과 전실과 후실 간의 갈등이 연이어 중첩된 독특한 서사구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전체 서사의 중심인물로서 사건의 중심에 놓인 서사주체의 문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서사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갈등 구조를 이해할 때, 〈취연전〉이라는 서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때에야 비로소 〈정을선전〉을 비롯한 같은 유형의 작품 간의 관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취연전〉이 여주인공 중심의 서사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의 특성과 서사구조를 살펴 가정소설의 두 가지 갈등 양상의 중첩에 나타나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작품의 주제와 함께 이 작품이 당대 독자들에게 주었던 미적 효과에 대해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물의 행위를 중심으로 전체 서사를 정리하고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인물의 성격과 인물들 간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서사 원리를 살폈다. 전체 서사의 주체이자 중심인물 취연은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대상을 욕망하지만 이를 획득하는 실질적 능력은 갖지 못한 무력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대신 원조자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파송한다. 취연은 욕망 달성을 위해 원조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이때 타인의 희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 이 과정에서 취연은 타인을 속이고 이용하는 이기심과 냉정하고 모진 양면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가정소설의 전형적인 주인공과는 다른 인물 형상을 보여준다. 반면 취연과 대립하는 인물들은 천성적으로 악한 존재라기보다 취연과 동일한 대상을 두고 경쟁하는 가운데 적대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반주체'이다. 도리어 취연의 원조자들이 동시에 반주체의 계획에 직간접적으로 일조함으로써 이중성을 드러낸다.

〈취연전〉에는 모두 여덟 번의 죽음이 그려진다. 인물들 간에 벌어지는 잔혹한 사건 속에서 전체 서사를 관통하는 것은 자식과 관련된 모성이다. 연이은 죽음 끝에 결국 남는 것은 끈질긴 생명력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다. 〈취연전〉이 공감을 얻고 사랑을 받은 이유는 모성을 바탕으로 잔혹한 현실을 이겨내는 강인

한 생명력과 생의 욕동으로 고양된 삶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인물 유형, 그래서 가정소설의 전형적인 선하고 순종적인 인물이기보다 무력하지만 때로는 냉정하고 이기적이기도 하여,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인 인물로 형상화된 취연에게서 찾을 수 있다.

국문핵심어: 〈취연전〉, 가정소설, 계모-전실소생 갈등, 쟁총 갈등, 욕망, 파송자, 반주체, 생의 욕동, 모성성

1 서론

〈취연전〉은 계모와 전실소생 간의 갈등, 전실과 후실 간의 쟁총 갈등이 연이어 중첩된 독특한 서사구조를 갖춘 조선후기 가정소설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갈등은 가정에서 벌어진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라는 점만 같을 뿐, 일부다처제라는 혼인제도로부터 야기된 가계의 문제와 조선후기 사회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 차원에서, 그 갈등 유형의 구조뿐 아니라 역사적 변천의 관점에서 상호 변별되는 것이기에, 이를 주된 서사적 갈등으로 다루는 작품은 각각 별개의 장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제기되었던 만큼[1] 이 두 가지 갈등 양상을 하나의 서사체에 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취연전〉은 다른 가정소설과 그 갈등 구조부터 변별되는 독특한 개성을 지닌 문제적 작품이다. 이러한 두 갈등 양상이 하나의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면, 이를 단지 여주인공의 고난의 심화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취연전〉의 의미를 단순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취연전〉과 유사한 〈정을선전〉을 비롯한 여러 작품 간의 관계도 흥미롭다. 〈취연전〉은 먼저 주목된 〈정을선전〉과 내용이 유사하여 〈정을선전〉의 파생 이본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취연전〉과 〈정을선전〉의 관계를 특정하는 것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정을선전〉은 남주인공에 대한 진술로 시작하여 태몽을 포함한 기자치성 삽화와 천상 징표가 남주인공에 한하여 나타나는 반면, 〈취연전〉은 여주인공이 먼저 등장하고 기자치성과 천상 징표도 여주인공

1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 집문당, 1996, 14-5쪽.

에게 나타난다. 남녀 주인공의 결연담의 양상도 다르고 작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르며, 친정의 선영 관리와 봉제사권 등의 언급과 부여 대목의 유무, 여주인공에 대한 계모의 핍박 원인과 핍박 사건의 전개[2], 계모 소생 자식들의 죽음 등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을선전〉과, 〈취연전〉 등 여주인공의 이름을 제명으로 하는 작품 간의 관계 연구는 별도의 논의로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3]

〈정을선전〉이 남주인공의 이름을 제명으로 한 것이라면 〈취연전〉은 여주인공의 이름을 제명으로 한 것이다.[4] 임성래는 「〈유치현전〉고」에서 이들 작품의 서사가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남주인공의 이름이 제명에 들어간 것은 잘못 명명된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가 여주인공의 이름을 제명으로 하는 이본의 출현으로 이어졌다고 하였다.[5] 나아가 그동안의 연구가 남주인공 정을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재웅은 〈유최현전〉을 중심으로 이본들을 비교 검토하고,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후기 가정소설로서의 의미를 논하였다. 김재웅 역시 임성래의 견해를 받아들여, 〈정을선전〉이 먼저 창작되어 유통되다가 어느 순간 〈유최현전〉이 파생된

---

2 김재웅, 「〈유최현전〉의 구조적 특징과 가정소설의 지평 확장」,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84-86쪽 참조.

3 〈정을선전〉과 〈취연전〉 등 여주인공의 이름을 제명으로 한 작품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임성래, 「〈유치현전〉고」(『연세어문학』 17집, 연세대 국어국문학과,1984)와 김재웅(2006)의 위의 논문 및 권영호의 「〈취연전〉 해제」(『윤선옥전·춘매전·취연전』, 박이정, 2014)의 글, 183-185쪽 참조.

4 여주인공의 이름을 제명으로 하는 작품은 〈취연전〉을 비롯하여 〈유최현전〉, 〈유최연전〉, 〈유치현전〉, 〈취현전〉, 〈유소저전〉 등이 있는데, 제명이 조금씩 다른 것은 낭독을 통한 수용 과정에서 필사자와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 기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여주인공의 이름을 제명으로 하는 작품들을 대표하여 〈취연전〉이라 칭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필사 상태도 양호하고 사건의 구성이나 삽화의 유무에 있어 선본으로 평가되며 특히, 여주인공의 이름을 제명으로 하면서도 〈정을선전〉과 서술의 유사성이 높은 작품이 있는 반면, 여주인공이 서사의 중심에 놓인 구성을 보이는 것이 김광순 소장 〈취연전〉이기 때문이다. 권영호, 위의 글, 184-185쪽 참조.

5 임성래, 앞의 논문, 46-67쪽.

것으로 보았다. 조선후기와 개화기를 거치면서 당대의 시대 변화에 맞게 여성 인물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여성 수난의 확장 구조가 〈유최현전〉의 서사구조로 나타났다고 하였다.[6]

김재웅의 연구는 임성래의 연구 이후, 십여 종의 이본들을 대상으로 비교하고 〈유최현전〉을 대상으로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그 문학사적 의의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평가된다. 그런데 〈유최현전〉의 서사구조 분석에 〈정을선전〉의 이본이 함께 다루어짐으로써 두 작품 관계 이해에 다소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춘향전〉의 추천 대목을 차용하여 이

6 김재웅, 앞의 논문, 96-97쪽 참조. 가정소설의 두 갈등 유형이 중첩된 독특한 서사구조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정을선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의 책과 논문 참조. 박태상, 「조선조 가정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88 ; 우쾌재, 「조선시대 가정소설의 형성요인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89 ; 이원수,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북대 박사논문, 1991 ; 이원수, 「가정소설의 전개양상」,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1993 ; 이승복, 「처첩갈등을 통해서 본 가정소설과 가문소설의 관련양상」, 서울대 박사논문, 1995 ;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 집문당, 1996 ; 이성권, 「가정소설의 역사적 변모와 그 의미」, 고려대 박사논문, 1998 ; 박경열, 「〈정을선전〉에 나타난 음모와 선인의 부정에 대한 소망」,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논집』 제26집,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2001 ; 이윤경, 「계모형 가정소설의 서사구조적 원리와 존재양상 연구」, 『고소설연구』 16권, 한국고소설학회, 2003 ; 박경열, 「가정소설에 나타난 악인(惡人)의 형성조건과 그 의미」, 『겨레어문학』, 제39호, 겨레어문학회, 2007, 107-136쪽 ; 김윤영, 「조선조 가정소설에 나타난 개인 간의 갈등양상」, 『온지논총』 17, 온지학회, 2007 ; 한청, 「가정소설에 나타난 음모양상 연구」, 조선대 박사논문, 2014 ; 서은선, 「조선시대 가족서사 문학 연구: 가족갈등과 인물유형을 중심으로」, 강남대 박사논문, 2016.
그 외에 남녀 주인공의 개아적 애정 성취를 추구하는 작품으로 본 김경숙의 논의, 인물들의 '충'의 행위에 주목하여'가족'이데올로기로 분석한 권영희의 논의, 가정소설의 인물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성 인물 간의 선악 대립을 부각하여 해당 신분의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 사회 통념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한 진건화의 논의 등이 있었다. 김경숙, 「〈鄭乙善傳〉 硏究: 후기 가정소설에 대한 일 고찰」, 『열상고전연구』 제12집, 열상고전연구회, 1999, 173-182쪽 ; 권영희, 「여주인공의 가족 갈등에 나타나는 원조자들의 충(忠)과 그 의미: 〈정을선전〉을 중심으로」, 『가족과 커뮤니티』 2,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 진건화, 「가정소설에 나타난 부정(不貞)의 전략적 의미: 〈정을선전〉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60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1, 294-296쪽 참조.

루어진 청혼과 결혼 대목을 〈정을선전〉의 그네 타는 대목과 남주인공의 상사병 대목으로 설명하는데, 오히려 여주인공에 초점이 맞춰진 작품에서는 이 부분이 간략하게만 언급되거나 아예 매파의 방문으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이다.[7] 또한 군담의 삽화가 전·후반부의 구조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남주인공의 서사로서의 구조적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것일 수는 있겠으나, 여성 중심 서사의 구조적 일관성을 입증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이로 인한 남편의 부재가 여주인공의 위기를 조성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8]고 보는 것이 정합적일 것이다. 이는 연구자가 〈유최현전〉을 〈정을선전〉으로부터 파생된 이본이라고 전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서사로서 〈취연전〉을 바라보려는 임성래의 문제의식은 연구의 방향 설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여주인공의 이름을 제명으로 하는 이본들과 〈정을선전〉이 동 시기에 존재했다고 〈정을선전〉을 저본, 또는 모본으로 여주인공을 제명으로 하는 작품들이 파생되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여전히 모호하다. 또한 〈정을선전〉의 제명이 잘못되었다든지, 〈유치현전〉의 인물 설정이 실패했다든지 하는 평가는 서사구조와 인물의 형상화 등 텍스트에 관한 논의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을선전〉이라는 제명의 작품들 역시 그 텍스트 자체의 성격에 집중하여 살펴볼 때 그 제명의 의미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을선전〉을 〈취연전〉 등의 저본 내지 모본이라고 확증할 수 없다면 이를 전제로 이들 작품을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해석하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를 온전히 해석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심인물을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의미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텍스트 자체이다.[9]

---

7 김재웅, 위의 논문, 96-98쪽 참조.

8 임성래, 앞의 논문, 58쪽.

9 브룩스와 워렌은 '어떤 작품의 기본적인 패턴을 밝혀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이 작품이 누구의 이야기인가'하는 점을 살피는 것이라 하였다. 즉 작품을 분석할 때 중심인물이 누구인가, 곧 이야기가 누구의 운명에 관한 것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S. 리몬 케넌, 최상규 옮김, 『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2003, 18쪽.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에서 제기된 바,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서사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주인공의 이름을 제명으로 하는 작품의 여주인공을 비롯한 인물의 특성,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서사구조, 서사를 이끌어가는 심층의 원리 곧 서사가 제시하는 작품의 주제와 이 작품이 당대 독자들에게 주었던 미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 먼저 인물의 행위를 중심으로 전체 서사를 정리하고 Ⅲ장에서 인물 간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각 인물의 형상화 속에 드러나는 성격을 분석, Ⅳ장에서 인물들 간의 대립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서사의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서사 전개의 중심이 여주인공에게 놓인 작품들 중 필사 상태가 양호하고 사건의 구성이나 세부 묘사에서 선본으로 평가되는 김광순 소장 〈취연전〉을 대상으로 한다.[10]

2 〈취연전〉의 서사적 갈등 양상

여주인공 취연은 어려서는 계모 정씨로부터 위협을 받고, 결혼한 뒤에는 후실 정열부인과의 갈등으로 위기에 직면한다. 여주인공이 두 번의 갈등을 겪는 서사구조는 여주인공의 고난을 강조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만큼 전후반부의 구조적 통일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요인이기도 하였다.[11] 여기에 결연담과 군담까지 더해져 서사적 긴장이 분산되는 등 〈취연전〉은 구조적 결함을 지닌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사실 한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 간에 벌어진 갈등이라는 점만 같을 뿐 성격과 변화 양상에서 변별적인 두 갈등 양상을 하나의 서사에 담고 있는 〈취연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 이 두 변별되는 갈등을 하나의 서사로 묶어내고 있는가, 그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일이다.

이때 고려할 것이 서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결핍과 갈등의 중심에서 사건을 겪는 인물이다. 곧 전체 서사의 상수가 되는 것은 여주인공 취연이다. 고소설의 많은 작품이 중심인물의 이름을 제명으로 삼는 점을 고려하면, 향유자들은

10 金光淳 編著, 金光淳所藏 筆寫本『韓國古小說全集』74, 도서출판 박이정, 2007. 전집에 영인된 표지에는 〈최현전〉이라 되어있으나, 본문에 여주인공의 이름이 '취연'으로 일관되어 나타나므로 〈취연전〉으로 표기한다.

11 이원수,「가정소설의 전개양상」,『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1993, 325-326쪽.

중심인물을 따라 사건을 바라보고 서사를 이해했음을 의미한다. 작품명이 된 주인공들, 소설 속 등장인물이 집중적 관심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주인공의 이름이 작품 제목으로 쓰이는 것이다.[12] 인물의 행위가 사건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서사는 곧 인물 행위의 총합이다. 인물의 행위를 중심으로 전체 서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송나라 영종대왕 때 청주 죽림촌의 유승상 부부는 자식이 없어 기자한다.
② 부인 최씨가 천상 선녀의 현몽 후 딸 취연을 낳는다.
③ 유승상이 딸이라고 서운해하고 관상을 본다.
④ 최씨는 남편에게 재혼해 후사를 정하라고 하면서 딸을 당부하고 죽는다.
⑤ 유승상은 최씨 부인의 장례를 치르고 취연의 유모를 정한다.
⑥ 유승상은 정판관의 딸과 재혼하고 정씨 부인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긴다.
⑦ 정씨 부인은 아들 경선과 딸 경애를 낳는다.
⑧ 취연과 경애 자매는 학업과 침선에 힘쓰며 각각 십칠 세, 십육 세가 되었다.
⑨ 정씨 부인은 유독 취연의 얼굴이 아름다워 미워했다.
⑩ 이승상 댁 아들 이적이 취연에게 구혼한다.
⑪ 계모가 딸 경애의 정혼을 위해 비상 넣은 밥으로 취연을 해하려 했으나 실패한다.
⑫ 계모가 취연을 해하기 위해 비상 넣은 소주를 만들어 옷장 안에 감추었다.
⑬ 계모가 계모의 아들 경선이 비상 넣은 소주를 먹고 죽자 비상 소주를 감춘다.

12 H. 포터 에벗 지음, 우찬제 외 옮김, 『서사학 강의: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문학과지성사, 2010, 250쪽 ; 임성래, 앞의 논문, 45쪽.

⑭ 계모가 노비 돌춘을 매수하여 취연을 죽이려 한다.
⑮ 취연이 현몽한 선녀의 이야기를 듣고 경애와 침소를 바꾼다.
⑯ 돌춘이 경애를 취연으로 알고 죽여 강에 버렸다.
⑰ 계모가 취연이 무사함을 보고 경애가 도망갔다고 하자 승상이 정씨의 행실을 한탄한다.
⑱ 이승상 아들 이적이 과거에 급제해 취연과 혼례를 올린다.
⑲ 이적은 계모의 지시를 받은 돌춘의 말을 믿고 혼인 첫날밤에 취연을 소박하고 떠난다.
⑳ 이적의 말을 들은 이승상도 분을 내며 두려워 떠난다.
㉑ 취연이 억울한 사정을 적은 유서를 유모에게 전하고 자결한다.
㉒ 취연의 혼명이 염습하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여 염하지 못한다.
㉓ 유모로부터 취연의 누명을 알게 된 유승상이 정씨를 죽이려 한다.
㉔ 취연의 혼령이 정씨와 돌춘을 죽이고 동네를 떠돈다.
㉕ 취연의 집안이 폐하고 나라에 가뭄이 든다.
㉖ 취연의 유모 부부도 떠나려 하나 취연의 만류로 마을에 남는다.
㉗ 장승상의 딸과 혼인한 이적이 청주어사를 제수받는다.
㉘ 어사가 죽림촌에서 유모를 만나 취연의 누명을 알게 된다.
㉙ 어사가 취연을 만나려 하지만 취연이 만나주지 않는다.
㉚ 어사가 태수를 통해 취연을 만나려 하나 취연이 태수를 물린다.
㉛ 취연이 황제가 보낸 편지의 명에 따라 어사를 만난다.
㉜ 취연이 어사에게 백일 불공을 드려 자신을 살리도록 한다.
㉝ 어사가 불공을 드려 현몽한 산신이 알려준 대로 호랑이로 변신한 철관도사를 만나 약을 구한다.
㉞ 어사가 약으로 취연의 상처를 치료하고 부활시킨다.
㉟ 황제가 어사를 승품하고 취연을 전처 충렬부인, 정씨 부인을 후실 정열부인으로 봉한다.
㊱ 취연이 어사의 편애로 인한 정씨 부인의 심사를 걱정한다.
㊲ 이승상이 죽자 왕부인이 아들을 먼저 낳은 며느리에게 선영 봉제사를 맡기겠다고 한다.

㊳ 충렬부인, 정열부인 두 부인이 모두 시기한다.
㊴ 충렬부인이 태기를 보이자 정열부인이 미워하고 해하려 한다.
㊵ 이적이 서변에서 일어난 도적을 정벌하러 대원수로 출정한다.
㊶ 원수가 뛰어난 능력과 도술로써 서변의 도적을 진압한다.
㊷ 정열부인이 시비 금삼을 매수하여 취연에게 간음했다는 누명을 씌운다.
㊸ 정열부인의 말을 믿은 왕부인이 취연을 국문하고 옥에 가둔다.
㊹ 취연이 자결하려 하나 태중의 아기를 걱정하며 한탄한다.
㊺ 취연의 시비 금연이 오빠를 통해 취연의 편지를 원수에게 전한다.
㊻ 금연과 초매가 남산에 땅을 파고 취연이 숨을 뒤주를 묻는다.
㊼ 금연이 취연과 옷을 바꿔입고 얼굴을 자해한 뒤 감옥에서 목을 매어 자결한다.
㊽ 왕부인이 금연의 시신을 취연으로 알고 초상을 치르지만 금삼에 의해 사실이 탄로난다.
㊾ 왕부인과 정열부인이 금연의 부모와 초매를 잡아 문초하지만 취연의 행방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㊿ 충렬부인이 은신처에서 출산한 뒤 자탄하며 기운을 잃는다.
51 승전한 원수가 취연의 꿈을 꾸고 급히 귀향하다 한충의 편지를 받는다.
52 원수가 옥에 갇힌 초매와 함께 취연 모자를 구한다.
53 원수가 금삼을 박살하고 정열부인을 귀양을 보낸다.
54 왕부인이 부끄러워 죽으려 하자 이원수가 위로한다.
55 시비 금연의 충렬비를 세우고 금연의 부모와 초매를 속량한다.
56 취연 부부는 천수를 누리고 후손들은 가문을 이어간다.

인물들의 행위는 갈등을 일으키고 결핍을 초래한다. 인물은 불안을 느끼고 동요하다가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또 다시 행위 한다. 이때 인물의 생이 행복에서 불행으로 또는 불행에서 행복으로 전이되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시퀀스라 한다.[13] 최초의 안정된 상황이 결핍이나 갈등을 거쳐 다시 안정된 상황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시퀀스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체의 욕망은 실현되거나 좌

절된다. 이러한 시퀀스를 기준으로 위 문형들을 정리하면 〈취연전〉은 8개의 단락으로 정리된다.

㈎ 결핍: 생모의 죽음과 유승상의 재취: ①-⑨
㈏ 시련: 이적의 구혼과 계모의 살해 시도 및 정절 모해: ⑩-㉑
㈐ 극복: 원혼이 된 취연의 복수와 신원: ㉒-㉛
㈑ 보상: 부활과 충렬부인에 봉함: ㉜-㉞
㈒ 갈등: 이승상의 죽음과 왕부인의 고지: ㉟-㊴
㈓ 위기: 이적의 출정과 정열부인의 정절 모해: ㊵-㊹
㈔ 해소: 취연의 도피와 금연의 희생: ㊺-㊿
㈕ 보상: 정열부인의 징벌과 취연 가족의 해로: 51-56

㈎에서 전처의 죽음은 유승상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의 결핍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핍은 유승상의 재취로 이어지고 이승상의 아들 이적과의 혼인을 둘러싼 계모와의 갈등은 취연으로 하여금 씻기 어려운 실절의 누명과 자결이라는 시련을 초래한다. ㈐에서 원혼이 된 취연은 계모에게 복수하고 우여곡절 끝에 부활함으로써 이적과의 혼인 상태를 회복하게 된다. 전반부 ㈎-㈑는 '계모와의 갈등'이다.

그러나 다시 ㈒에서 이적의 전실 충렬부인이 된 취연은, 이미 이적의 아내로 지내왔음에도 황제에 의해 전실이 아닌 후실로 봉해진 정열부인과 함께 며느리들에게 내려진 시어머니 왕부인의 장자 출산이라는 과제를 두고 대립한다. ㈓에서 또 한 번의 정절 모해를 입고 임신한 상태로 죽을 위기에 처한 취연은 ㈔에서 금연과 초매 등의 희생으로 피신하고 뒤늦게 돌아온 이적의 도움으로 정열부인을 처벌하고 해로한다. 후반부 ㈒-㈕는 '후실과의 갈등'이 중심이다.

결핍이나 갈등으로 발생한 사건 속에서 그 결핍을 충족하고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안정된 상태를 욕망하거나 탐색하는 인물을 서사의 주체라 할 때, 전반부

13 시퀀스란 상황의 변화를 갖는 것으로 서사에서 독립적인 의미 단위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시퀀스는 '하나의 안정된 상태에서 불안/동요를 거쳐 다시 안정된 상태로의 진행 과정'으로 정의된다. 토도로프, 민희식 역편, 「시학에 있어서의 구조주의」, 『구조주의란 무엇인가』, 고려원, 1985, 166쪽 ; 김재용, 앞의 책, 24-6쪽 참조.

의 계모와의 갈등 및 후반부의 후실과의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주체는 바로 여주인공 취연이다. 서사 속에서 인물들은 행위를 통해 서로 관계 맺으며, 인물의 행위가 다른 인물들에게 영향을 주고 이들 간 관계의 역동성이 서사를 움직인다고 할 때 인물의 성격은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주체 취연을 비롯한 각 인물들의 성격을 사건의 단락을 따라가며 행위를 통해 살펴보자.

3 〈취연전〉의 인물 형상화: 전형의 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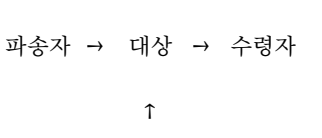
각각의 인물들은 사건의 전개에 어떤 역할들을 수행한다. 사건의 전개에서 의미의 관점으로 정의된 인물의 행위를 기능이라 하고 인물들은 기능에 따라 행위항에 배치된다.[14]

결핍이나 갈등으로 발생한 사건 속에서 안정된 상태를 욕망하고 탐색하는 주체가 획득하고자 하는 객체를 대상이라 한다. 이때 주체는 자발적으로 대상을 찾기 위해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 보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주체로 하여금 대상을 탐색하도록 하는 기능이 파송자이다. 탐색되고 획득된 대상은 수령자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과정에 주체의 편에서 지원하는 원조자와 반대로 주체의 대상 탐색을 방해하거나 대상을 빼앗기 위해 갈등을 일으키는 적대자가 존재한다.[15]

주인공 취연을 중심으로 그 주체로서의 특성과 인물 성격, 취연의 대상 탐색을 돕는 원조자와 적대자들에 대해 살펴보자.

---

14 보편적인 여섯 개의 기능을 행위항이라 하며, 인물들은 사건 속에서 행위항에 위치한다.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보편적 성격은 다음과 같은 행위항 체계로 정리된다. 그레마스가 정의한 행위항 도식은 다음과 같다.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90쪽. 각주 1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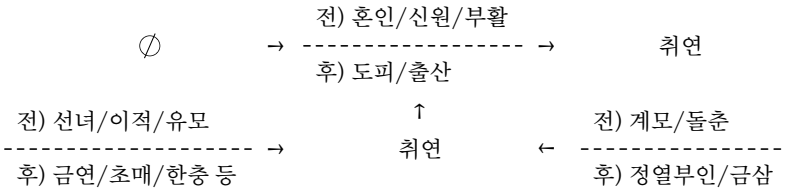


15 한편 대상에 대한 욕망은 주체와 반대의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즉 주체를 부정하지 않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 동시에 의도적인 대립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체의 행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들 사이에 모순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를 반주체anti-subject라 한다. 미케 발, 한용환 외 옮김,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65-66쪽 참조.

3.1 주체의 양면성과 非善

취연은 전반부‘계모와의 갈등’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결하지만, 이적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고 부활한다. 후반부 ‘후실과의 갈등’에서는 후실의 정절 모해로 시어머니 왕부인의 노여움을 사 임신한 상태로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시비 금연 등의 희생으로 벗어난다.

전후반부 사건 속에서 시련과 고난 끝에 혼인과 신원, 부활과 출산 등을 성취하는 주체는 취연이다. 취연에게 위기를 미리 알려주는 선녀나 이적과 유모, 취연이 피신하도록 돕는 금연과 초매, 금연의 오빠 한충 등은 원조자이고 주체 취연을 해하려는 인물들, 전반부의 계모와 돌춘, 후반부의 후실 정열부인과 그를 돕는 금삼 등은 적대자이다. 이들의 행위항 체계는 다음과 같다.



[범례] 전) 전반부, 후) 후반부. 이하 도식 同

그런데 취연은 욕망하는 대상, 곧 신원과 부활, 그리고 이적과의 결혼을 회복하는 데에 실질적 능력은 없는 무력한 존재이다. 어려서 친어머니를 잃은 취연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지하는 능력도 없고, 간적을 물리치거나 진실을 밝혀 이적이나 왕부인을 설득하는 능력도 없다. 결백을 주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결뿐이다.

> 잇 ᄯᅴ 소제 금에 치복 닉여 입고 원앙침 도두 비고 비취금 칭칭 덥고 은 중도 드난 칼노 셤셤옥수 놉히 드려 ᄌᆞ결ᄒᆞ니 쳔지 변식ᄒᆞ고 일월이 무광ᄒᆞ난지라[16]

16 〈취연전〉, 金光淳 編著, 金光淳所藏 筆寫本『韓國古小說全集』74, 도서출판 박이정, 2007,

자결을 결행한 취연의 한은 매우 강력해서 온 마을을 폐읍에 이르게 할 정도였지만, 이마저도 궁극적으로는 취연의 상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오히려 자결한 취연의 원혼으로 집안사람들과 온 마을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떠나가는 결과만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취연은 대상을 욕망하지만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한 욕망의 주체, 잠재적 주체이다.[17]

취연은 계모에 의해 비상 넣은 밥과 소주를 먹고 죽을 뻔하지만, 갑작스러운 광풍으로 밥 위에 먼지가 앉는 바람에 살았고, 다른 이가 먼저 비상 소주를 마시고 죽음으로써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⑪-⑬) 또 계모가 노비 돌춘을 매수하여 취연을 직접 살해하려고 하였을 때에는 취연을 점지해준 선녀가 현몽하여 알려줌으로써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⑭-⑯) 취연의 문제해결에는 원조자의 도움이 있다.

주체에게 도움을 주는 원조자의 양상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주체의 의뢰 없이 도움을 주는 인물 유형이다. 이들은 직접 혹은 대리인을 파견하여 주인공의 위기를 해소시켜 주며 미래를 예언함으로써 주체를 돕는다. 취연에게 계모와 돌춘의 살해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선녀가 대표적인 예이다. 취연의 부활 방법을 알려주는 산신이나, 이적에게 신령한 약을 건네는 철관도사 등이 그와 같은 인물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주체가 도움을 주는 이에게 의뢰해서 욕망을 달성하는 경우이다. 원조자는 주체와 동맹의 관계를 맺고 주인공의 조종을 받아 서사적 사건에 직간접으로 개입한다.[18] 이들은 주체의 명시적이거나 함축적인 지시에 따라 대상을 대신 탐색하는 실질적 능력을 지닌 수행적 주체가 된다. 동시에 욕망하는 주체는 이들로 하여금 대상을 탐색하도록 하는 파송자가 된다.

취연은 어사가 되어 죽림촌에 온 이적으로 하여금 자신을 되살리도록 한다. 죽림촌을 떠돌 수밖에 없는 원혼 취연이 자신의 부활을 위해 대신 이적을 파송하는 것이다.

511쪽. 이하 인용문 끝에 해당 쪽수 표기.

17 반면 능력과 지식을 갖고 수행하는 주체를 수행적 주체라 한다. 그레마스, 김성도 편역, 『의미에 관하여』, 인간사랑, 1997, 380-381쪽.

18 송효섭, 『설화의 이해』,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8, 40-41쪽.

소제 혼명이 공중에서 우난 말이 반갑도다 반갑도다 낭군 보기 반갑도다 (…) 삼ᄉᆞ 년 즉은 소제 살일낫고 이 왓난가 만경충파 노든 고기 물결 차 이 왓난가 명천이 감동하ᄉᆞ 이ᄂᆡ원정 풀기 ᄒᆞ니 여쳔지무궁이라 낭군님아 낭군님아 진실로 왓시그든 즉은 소제 살니 쥬소 이ᄂᆡ 몸 살니기 난 낭군님 쳐분에 잇ᄉᆞ오니 뒷동산 친친 달라 칠셩단 모아 노코 빅일불공 ᄒᆞ기되면 ᄌᆞ연 살니리라 524-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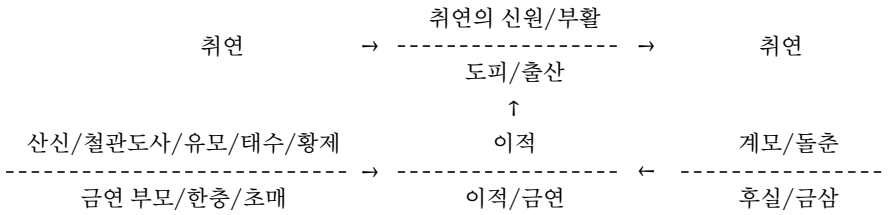
밑줄 친 부분에서 파송자 취연의 지시가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후반부 '후실과의 갈등'에서는 금연의 파송을 함축적으로 지시한다. 금연과 초매는 취연의 시비로서 후실 정열부인과 금삼의 정절 모해로 임신한 채 옥에 갇힌 취연을 옥바라지 한다. 취연은 그들에게 죽어서 결백을 입증하고 싶지만 태중의 아기가 불쌍하여 그러지 못한다며 한탄한다. 금연은 이를 듣고 취연의 도피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직접 실행한다. 금연은 취연이 도피하여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계책을 세우는 지식과 그 계획을 실행하는 능력을 갖춘 수행적 주체이다.

금연과 초ᄆᆡ 부인 즉일 날을 졍한 쥬 알고 젼옥에 가고 한 후ᄋᆡ 슬피 우니 부인이 변ᄉᆡᆨ ᄃᆡ왈 ᄂᆡ 즉어 맛당ᄒᆞ나 복즁에 잇난 ᄋᆡ기 불상코 가련ᄒᆞ다 나의 죄로 함기 즉ᄌᆞ ᄒᆞ니 엇지 ᄋᆡ련치 안니ᄒᆞ리요 ᄒᆞ거날 금연이 집ᄋᆡ 도라와 제 부모ᄭᅴ 고왈 542

금연이 엿ᄌᆞ오ᄃᆡ 부인도 위로ᄒᆞ건이와 ᄯᅩ 할님이 도라오시면 죄 면ᄒᆞ소셔 ᄯᅩ 부인이 즉ᄉᆞ오면 복즁ᄋᆡ 기신 ᄋᆡ기를 엇지ᄒᆞ리요 소비 즉난 거실조곰도 염여말라시고 급히 초ᄆᆡ를 싸라가옵소셔 부인이 쥬져ᄒᆞ다가 초ᄆᆡ를 싸라갈ᄉᆡ 서로 의복을 밧가 입고 서로 붓들고 통곡 왈 실푸다 우리 금연아 어난 쳔년에 다시 볼고 ᄒᆞ며 서로 이별ᄒᆞ더니 잇ᄊᆡ 금연이 부인에 의복을 입고 칼을 시고 손으로 면상을 짤려 비황형ᄒᆞ고 빅ᄉᆞ슈근을 목에 ᄆᆡ여 즉어드니 545-546

여기에서 취연의 한탄은 금연의 행위에 함축적 지시로 작용하는 것이다.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행위를 수행할 수행 주체를 명시적 또는 함축적으로 지시하는 취연과 인물들의 행위항 체계는 다음과 같다.



취연의 문제 해결과 욕망 실현에는 타인의 희생이 수반된다. 취연이 계모에게 매수된 돌춘에게 살해당할 위기에서 벗어난 데에는 선녀의 도움과 배다른 동생 경애의 희생이 있다. 취연은 현몽한 선녀의 말을 듣고 경애를 자신의 방에서 자도록 한다. 경애는 아무런 의심 없이 취연의 침실에서 함께 잠이 든다.

> 잇ᄯᅴ 취연이 경ᄋᆡ를 다리고 침ᄌᆞ질ᄒᆞ다가 몸이 곤하여 ᄌᆞᆷ간 조우더니 비몽간에 쳔상을셔 엇더한 부인이 학을 타고 나려와 이르ᄃᆡ 취연아 네 오날밤ᄋᆡ 기모ᄋᆡ 흉악한 환을 면치 못할 거시니 ᄂᆡ 말을 명심불망ᄒᆞ라 나는 몬ᄃᆡ 지시한 ᄉᆞ람이라 ᄂᆡ 하도 원통ᄒᆞ여 와시니 네 목슘을 보존할 진딘 ᄂᆡ 말을 ᄌᆞ시 더러라 오날밤에 너의 동ᄉᆡᆼ 경ᄋᆡ를 유인ᄒᆞ야 네 방에 ᄌᆡ우고 너난 경ᄋᆡ 방에 가 ᄌᆞ고 그 후난 네 방에 ᄌᆞ지 말고 유모 집에 가 ᄌᆞ라 ᄒᆞ고 누누이 부탁한 후ᄋᆡ 난ᄃᆡ업거날 ᄭᆡ달러니 남가일몽이라 499-500

> 이날 밤에 소저 경잇다려 하난 말리 근ᄌᆞ에 몸이 곤하여 눈에 헛거시 보이니 형졔간에 각방 거쳐ᄒᆞ다가 오날밤ᄋᆡ 동침동슉이 엇더하뇨 경ᄋᆡ 왈 그러면 벌셔 긔 말 못하든야 ᄒᆞ고 이날 밤에 소져 두리 함기 ᄌᆞ다가 경ᄋᆡ ᄌᆞᆷ든 후ᄋᆡ 밧긔 나와 경ᄋᆡ 방에 가 ᄌᆞ든니 (…) 돌츈이 바다 허락ᄒᆞ고 이날 밤에 칼을 들고 소져 방에 더러가 경ᄋᆡ를 질너 쥭이 신체를 남강슈에 여코 동방이 열니거날 500-501

경애가 잠든 것을 확인한 취연은 몰래 빠져나오고 영문도 모른 채 경애는 돌춘의 칼에 죽임을 당한 뒤 강에 버려진다. 취연은 경애의 희생으로 목숨을 구한 것이다. 취연의 파송으로 희생하는 인물은 그 외에도 많다.

원혼이 된 채 승천하지 못하고 시신이 놓인 죽림촌을 지킨 유모 부부(26), 원귀가 된 취연이 공식적으로 실절의 누명을 신원하는 데에도 무시와 무안만 당하고 돌아간 태수의 희생(30)이 있었고, 자결한 취연이 부활하게 되는 것은 백일 동안 기도하여 산신을 감동시키고 죽음까지 감수하며 호랑이 앞에 나선 이적의 희생 덕분이다.(32-33)

취연을 위한 희생은 후반부 '후실과의 갈등'에서 시비 금연에 의해 극대화된다. 취연은 이적의 전실이 된 뒤 사랑을 받아 임신하게 되는데, 이를 시기한 정열부인의 정절 모함을 받고, 이를 믿은 왕부인에 의해 붙잡혀 벌을 받아 죽을 지경에 놓인다. 시비 금연은 자신이 취연인 척 감옥에 대신 들어가 스스로 얼굴을 자해하여 위장하고 목을 매어 죽는다.

원조자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취연의 성격은 문제적이다. 무력한 여주인공이 원조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가정소설의 일반적인 양상이지만, 취연의 경우에는 그 원조자들을 자신이 직접 파송하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취연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타인의 희생을 명시적 또는 함축적으로 지시하는 주체라는 것이다.

더욱이 경애가 대신 죽게 되는 ⑮-⑯에서 취연은 '속이는 자'이다. 몸이 좋지 않아 잠을 자기 어렵고 마침 함께 잔 적도 없는 자매이니 자신의 방에서 함께 잤으면 좋겠다는 거짓말로 유인한다. 경애는 진작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흔쾌히 취연의 침소에서 함께 잠이 든다. 계모의 소생이 오히려 순수하고 순종적이며 착하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속이는 자' 취연에게 계모의 소생 경애는 '속는 자'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소설에서 전실소생과 계모의 소생, 예를 들어 〈장화홍련전〉과 〈콩쥐팥쥐전〉의 장쇠와 팥쥐가 '속이는 자'그리하여'죽이려는 자'로서 장화와 홍련 및 콩쥐와의 대립에서 선과 악의 대립적 가치에 따라 악의 편이라고 해석되는 것과 달리, 이 장면에서는 그 위상이 역전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후반부'후실과의 갈등'에서 주체 취연이 전반부에서와는 다르게 정절 모해에 대하여 머뭇거리며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과 태중의 아이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주변인의 희생을 조종하는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옥에 갇힌 임산부 취연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겠지만, 그 선택의 끔찍한 결과를 알면서도 금연을 두고 뒤돌아서는 것이 취연이다. 취연은 위기의 순간에 순진한 동생을 속이는 자이고 금연의 희생을 두고 뒤돌아서는 모진 인물이다.

일반적으로 속고 속이기는 윤리적 기준에 의해 변별될 수 있는 대립항이다. 그런데 이러한 층위가 〈취연전〉의 경우에는'선:악'의 대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속이는 자의 행위를 '악'이라 할 수 있겠지만, 속는 자의 무지와 순수함을 '선'이라 하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속이는 취연을 '악'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취연은 선하지만은 않은 인물, 非善의 인물이다.

3.2 이중적인 원조자와 반주체로서의 적대자의 非惡

취연의 남편 이적은 황제의 조서까지 받아오는 수고 끝에 취연의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겨주며, 죽은 취연이 부활하도록 돕는다. 원조자의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적은 취연이 겪는 모든 위기와 시련, 그리고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물이다. 이적은 (나) 19에서 계모가 매수한 돌춘이 칼을 들고 나타나 취연의 실절을 꾸며대고 협박할 때 그 낯선 남자의 말 한마디에 취연을 버린다.

> 돌츈이 엿ᄌᆞ오ᄃᆡ 소인이 부인지모ᄃᆡ로 할나 ᄒᆞ고 이날밤에 돌츈이 비슈를 들고 소졔방문을 열고 셔셔 ᄒᆞ난 말이 네 엇더한 놈이관ᄃᆡ 남의 기집을 다리고 방ᄌᆞ이 히롱ᄒᆞ난야 네 밧비 오든 길노 도라가러라 그러치 안니ᄒᆞ면 이 칼노 ᄇᆡ일나 ᄒᆞ니 잇ᄯᅴ 할님이 소졔를 다리고 만담정화 ᄒᆞ다가 보니 문박 엇더한 놈이 비슈로 들고 셧거날 할님이 놀ᄂᆡ 간담이 ᄯᅥ러지난지라 이 일을 ᄉᆡ각ᄒᆞ니 졍신이 아득ᄒᆞ고 마음을 진졍치 못ᄒᆞ여 소졔를 쥭이려 ᄒᆞ다가 다시 말할 ᄯᅳᆺ지 업난지라 ᄒᆡᆼ중을 ᄎᆞ려 나올ᄉᆡ 소졔 이러나 할님을 붓들고 눈물을 흘니며 왈 쳡은 쥭어도 쥐 업ᄉᆞ오니 종ᄎᆞ로 슈문ᄒᆞ압소셔 ᄒᆞ며 (…) 할님을 말유ᄒᆞ니 더련지 안니ᄒᆞ고 부친쳐소를 나와 이ᄉᆞ연을 쥬달ᄒᆞ니 승상이 이 말을 듯고 이런 분한 일이 어ᄃᆡ

이시리요 일번은 분ᄒᆞ고 일번은 겁ᄒᆞ여 즉시 힝ᄌᆞ 을 슈습ᄒᆞ여 가난지라 505-506

돌춘의 거짓말과 위협에 이적은 도리어 취연에 대해 분노하며 그녀를 죽일 생각까지 한다. 이적은 취연의 소명을 듣지도 않고 아버지 이승상과 함께 돌아가 버림으로써 취연을 소박맞힌다. 혼인은 파탄나고 그 결과 취연은 자결하게 된다. 이 사건의 주범은 계모이고 그를 도운 돌춘이 공범이지만, 그들 계획의 성공은 이적이 취연의 소명은 듣지 않고 도리어 돌춘의 말을 사실로 믿고 취연을 버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취연의 자결에 이적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계모의 계획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적과 이승상 또한 취연에게는 적대자로서 기능한다.

후반부에서도 이적은 취연이 편애를 경계하며 정열부인의 심사를 헤아리도록 경고함에도 이를 무시한다. 그것이 곧 취연의 임신으로 이어지고 왕부인의 선언으로 시작된 부인들 간의 갈등에서 취연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연의 아버지 유승상이나 이적의 아버지 이승상과 왕부인 등은 취연의 욕망 실현에 최종적으로 그 진상을 가려 옳고 그름을 판정함으로써 원조자가 되어야 할 인물들이지만, 서사 내에서는 도리어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적대자의 계획이 성공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취연에게는 적대자로 기능한다. 특히 왕부인은 정열부인이 정절을 모해할 때 취연의 말은 듣지 않고 취연의 임신 사실도 전혀 개의치 않고 앞장서서 핍박함으로써 적대자의 기능을 한다.[19] 이들 인물은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이중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한편 〈취연전〉에서 전실소생인 취연과 계모 간의 갈등이 노출되는 지점은 계모가 경애의 남편감으로 이적을 욕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애초에 계모와의 심각한 갈등 양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계모의 취연 위해의 동기는 계모의 악

19 여기에서 유승상이나 이적, 이승상과 왕부인은 모두 취연의 욕망 탐색의 적대자인 계모와 정열부인과의 관계에서 '속는 자'이다. 이는 주체인 취연에게 시련을 안겨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야말로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고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책임을 지닌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배자, 책임자의'무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드러낸다.

한 성품 때문이라기보다 전실소생보다 자기 딸이 좋은 신랑감을 맞이하기를 바란 것이다. 다시 말해 혈연관계의 친소 관계가 특정한 상황에서 갈등을 촉발하는 것이다.

> 졍부인이 지딸을 가라치며 쥬촌을 만니 ᄃᆡ졉ᄒᆞ거날 ᄆᆡ자 엿ᄌᆞ오ᄃᆡ 젼실 ᄯᆞᆯ을 졍혼ᄒᆞ고 가난이다 ᄒᆞ더라 각셜 잇 ᄯᅴ 졍부인이 제 ᄯᆞᆯ을 졍혼치 못ᄒᆞ고 취연을 졍혼ᄒᆞᆫ니 더욱 심욕을 ᄂᆡ여 소저를 죽이고 졔 ᄯᆞᆯ을 졍혼하리라 ᄒᆞ고 496

계모의 입장에서 이적과 딸 경애의 정혼 문제는 굳이 취연을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 경애가 매파와 이적의 눈에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딸 경애를 이적에게 시집 보내려는 반주체로서의 계모의 욕망이 취연과 대립 관계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취연의 결연에 장애가 될 수 있기에 그들은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동일 대상 욕망에 따른 주체들 간의 대립이 취연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양상은 후반부‘후실과의 갈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왕부인이 선언한 장자 출산이라는 며느리들에게 내려진 과제가 이들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적의 아버지 이승상의 죽음 이후, 왕부인은 이적의 두 부인, 충렬부인 취연과 정열부인 정씨에게 먼저 아들을 낳는 사람에게 선영을 모시고 제사를 받드는 권한을 주겠다고 한다. 이로부터 두 부인이 서로를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두 부인, 곧 취연과 정열부인 모두 서로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이들 관계의 본질이 경쟁의 관계이며 이때 취연과 대립하는 적대자 정열부인을 악하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 일일은 왕부인이 갈아ᄉᆞᄃᆡ 양부인즁에 먼져 ᄉᆡ 남ᄒᆞ면 션영산슈와 가ᄉᆞ을 막기리라 ᄒᆞ드니 두 부인이 시기ᄒᆞ여 먼져 싱남ᄒᆞ기를 바ᄅᆡ드라 그러구로 츙열부인이 ᄐᆡ기 이시ᄆᆡ 졍열부인이 미워ᄒᆞ여 항상 ᄒᆡ코져 ᄒᆞ더라 533

이 과제에 두 부인, 곧 정열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취연도 욕망을 갖고 시기심으로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취연에 대한 이적의 편애는 정열부인의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취연의 태기는 취연에 대한 구체적인 위해 시도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 이 날밤에 졍열부인이 시비 금삼을 다리고 의논 왈 너난 알거니와 할님이 츙열부인 어든 후로 나의 성정이 ᄌᆞ연 불편ᄒᆞ여 ᄒᆡ코져 할 ᄯᅳᆺ지 잇시니 네 ᄂᆡ 말ᄃᆡ로 ᄒᆞ면 종문서를 살고 동ᄉᆡ 갓치 늑일 긋시니 ᄂᆡ 말ᄃᆡ로 ᄒᆞ라 ᄒᆞ니 538

전반부의 계모나 후반부의 후실 정열부인의 천성이 악하다는 표지는 명확하지 않다. 더욱이 취연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동생을 속여 위험 속으로 유인하고, 자결한 뒤에는 원혼이 되어 집안사람들 및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나도록 만들며, 유모 부부는 떠나지 못하게 막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등, 선하지 않은[非善] 인물이라면 인물들 간의 대립 양상이 가치를 드러낸다고 할 때, 취연과 대립하는 인물, 곧 계모와 후실을 단순히 악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그들의 행위가 표면적으로나 결과적으로 악한 것이라 평가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행위의 성격이지, 인물의 성격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경우, 인물 자체의 성품이 악한 것으로 묘사되는 다른 가정소설의 악한 인물들과는 구별된다. 〈장화홍련전〉이나 〈사씨남정기〉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정을선전〉만 하더라도 그 묘사에서 차이를 드러낸다.[20]

---

20 〈취연전〉과 이본 관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정을선전〉에서도 여주인공 추연과 계모의 묘사는 〈취연전〉의 그것과 다르다. 아래 인용문은 〈정을선전〉,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편, 『활자본고소설전집』 10권(아세아문화사, 1976), 6쪽, 띄어쓰기와 밑줄은 필자.

가) 일홈은 츄년이라 하니라 난지 삼일만에 부인 최씨 산후병으로 세상을 영결하니라 즉시 유모을 명하야 지셩으로 양육하야 년긔 십오셰에 이르러 시셔를 통달하야 지셩으로 부친을 셤긔며 겸하야 셜부화용이 무쌍하고 용모자색이 태림태사에 비하겠고 덕행은 동셔고금에 졀대하니라

나) 상셔 환거 할슈업셔 로씨라 하는 여자를 재취하야 일남일녀을 나흔지라 로씨 본

〈취연전〉에서 취연과 계모 정씨, 후실 정열부인과의 갈등과 대립은 동일한 대상을 탐색하고 욕망하는 경쟁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사에는 여러 주체가 존재할 수 있고 이때 각 주체들은 서로 반주체로 맞선다. 이들은 적대자라기보다 경쟁자이며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순간 주체와 반대편에 선 존재들일 뿐이다.[21] 물론 이들의 행위, 곧 자식을 위해 살인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며 거짓으로 일을 꾸며 모함하는 것은 면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행위 자체가 선하지 않다고 하여, 그 인물 자체를 악하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행위의 주체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그 행위만으로 존재 자체가 규정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행위가 벌어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악되는 인물의 성격을 논하지 않은 책 일회적인 행위만으로 판단한다면, 인물에 대한 잘못된 평가뿐 아니라 사건에 대한 몰이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문제의 해결책 또한 바르게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악한 자라고 단순히 규정하기 어려운 非惡의 존재들이다.

오히려 인물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고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바르게 통제하지 못하며 책임지지 않는 이들이 문제이다. 전반부에서 아버지 유승상은 후사를 잇기 위해 정씨와 재취하고도, 후처와 취연 간의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근거 없는 취연의 실절 이야기에 사실관계마저 확인하지 않은 채 누명을 쓰고 죽는 딸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후반부에서 왕부인은 후사를 이으라는 말로 두 며느리를 경쟁하고 대립하게 했으면서도, 정작 취연의 실절이 의심되자 그의 임신 사실도 개의치 않고 핍박한다. 가부장제 가족공동체의 장으로서 가족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바르게 해결

래 마음이 어질지 못하야 츄련을 항상 해코자하더라

가)에서 여주인공 추연은 전형적인 가정소설의 여주인공으로 재색을 겸비하고 효성스러운 덕행을 지녔다고 묘사되는 반면 천성적으로 '본래 마음이 어질지 못'한 계모 노씨는 처음부터 항상 전실소생을 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술된다. 노씨의 적대적 행위는 어떤 특정한 계기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인 성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나 상황의 제시가 필요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취연전〉과 〈정을선전〉을 비롯한 같은 유형의 다른 작품들 간의 관계 문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21 미케 발, 앞의 책, 66쪽.

해야 할 인물들이 무능력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취연과 계모 정씨, 후실 정열부인 등은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며 갈등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연과 그에게 적대자로서 기능하는 반주체들, 곧 계모 정씨와 정열부인의 관계를 단순하게 선과 악의 대립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들의 표면적이고 결과적인 행위만을 통한 단선적인 이해이다.

이는 취연과 반주체들, 곧 계모와 정열부인 간의 대립이 드러내는 의미가 단순히 선악의 윤리적 차원이 아님을 의미한다. 주체 취연과 반주체로서의 계모와 후실의 행위와 이들간의 관계로부터 드러나는 의미, 그것이 드러내는 가치는 무엇일까?

4 〈취연전〉의 미학: 새로운 인물의 탄생과 生의 欲動

〈취연전〉의 서사 전반에 걸쳐 인물의 죽음은 여덟 차례 등장한다. 취연의 생모는 어렵게 딸을 얻은 뒤 칠 일 만에 죽고 만다. 그 죽음이 더욱 비극적인 이유는 그나마 얻은 자식이 딸임을 안타까워하기 때문이다.

> 승상이 반기와 솔펴보니 여ᄌᆞ거날 승승 분분셥셥ᄒᆞ야 한슘ᄒᆞ고 하난 말이 우리 ᄂᆞ위 연광 ᄉᆞ십이 여식을 두어시니 션영ᄉᆞ슈를 누구계 부탁하리요 ᄒᆞ며 슬혀ᄒᆞ더니 (…) 부인이 눈물 흘니며 왈 나ᄂᆞᆫ 세상이 박복한 ᄉᆞ람이라 연광 ᄉᆞ십이 실ᄃᆡ 업난 여식을 주고 ᄉᆞ 평이 영화를 보지 못ᄒᆞ고 황쳔이 도라가니 한심ᄒᆞ고 원통ᄒᆞ다 ᄒᆞ고 490-491

유승상의 후실로 들어온 정씨는 자신의 딸을 좋은 곳에 시집보내려는 마음을 가졌다가 아들 경선과 딸 경애를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비극적 어머니가 된다.

주인공 취연은 수 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서도 결국 억울한 누명에 소박을 맞고 자살한다. 취연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계모와 계모를 도왔던 돌춘은 취연의 원혼에 의해 급살당한다.

후반부에서는 취연의 도피를 돕는 금연이 자신의 얼굴을 자해하고 자결한

다. 취연을 모함하려는 정열부인을 도운 금삼은 처벌을 받고 죽는다.

여덟 번이나 반복되는 죽음의 서사는 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계모나 후실처럼 그 모성의 엇나간 방향성을 경계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성 간의 대립과 경쟁을 초래한 가부장제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념과 제도에 길든 인간의 비뚤어진 욕망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 비극을 불러일으킨 것으로도 이해된다. 그런데 이러한 표면적인 죽음의 이면에 주목할 것이 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에서 계모가 취연을 해하려 한 것은 자신의 친딸 경애를 좋은 곳에 시집을 보내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계모에 의해 고난을 당하는 취연을 지키는 인물은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취연의 곁에서 먹이고 재워주고 길러준 유모였다. 이들의 관계는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어머니와 딸의 관계나 다름없다. ㈐에서 정열부인이 취연을 해하려 한 것은 자식을 갖지 못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시샘 때문이었다. ㈑의 정열부인의 위해에 취연이 수동적인 태도로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은 태중의 아기를 보호하려는 모성의 발로였다. 금연이 자결하면서까지 취연을 구하고자 한 것도 취연의 태중의 아기를 보호하려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취연을 중심으로 그를 돕는 원조자나 그와 대립하는 적대자, 반주체 모두 그 행위의 바탕에는 자식과 관련한 '모성'이 자리한다. 비록 취연의 생모가 어렵게 얻은 자식임에도 딸이라고 스스로를 한탄하는 가부장적 사고의 한계를 드러내면서도 죽음의 순간에 취연이 겪을 고통스러울 미래를 걱정하며 남편에게 잘 보살펴주기를 부탁하는 것도 자식에 대한 모성의 발로인 것이다.

〈취연전〉은 가부장제 하 여성들의 비극적 현실을 보여주는 데에 멈추지 않는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갈등 관계의 인물들은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선과 악의 인물이라고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의 행위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성, 자식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모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덕과 비도덕의 기준이나 선과 악의 윤리적 가치를 넘어선다. 물론 계모와 후실의 행위는 법과 도덕적 기준에 의해 악한 행위라고 평가되고 벌을 주어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모 정씨와 후실 정열부인이라는 인물은 위기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자식을 위해 선하지만은 않았던[非善] 취연만큼이나 악하지 않은[非惡] 인물이다. 이들은 가부장제하 주어진 경쟁의 상황에서 모성에 따라

저마다의 안정적 상태를 욕망하는 가운데 서로 충돌하는 인물들인 것이다. 선하지 않은 만큼 악하지도 않은 여성들의 욕망의 중첩된 충돌이 〈취연전〉의 서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취연전〉은 금연, 초매 등의 희생으로 목숨을 구한 취연이 아기와 함께 이적에 의해 구조되고 정열부인과 금삼이 처벌되면서 끝을 맺는다. 끝없는 갈등 속에서 여덟 번의 죽음이 이어지던 잔혹한 이야기 끝에 남은 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다. 새 생명을 위한 희생을 통해 안정된 상태를 회복하고 새 생명을 낳는 것이 〈취연전〉이다. 그런 점에서 옥에 갇혔던 취연이 피신하여 몸을 숨긴 곳, 그리고 아기를 출산한 곳이 땅속에 숨긴 뒤주였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땅에 묻은 뒤주는 사실 죽은 이를 넣어 땅에 묻는 관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바로 그 땅속에 묻힌 관과 같은 곳에서 취연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나아가 새 생명을 낳았다. 땅에 파묻힌 뒤주는 죽음을 상징하는 관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공간이 된다. 〈취연전〉의 서사 전반에 걸친 중첩된 갈등과 죽음의 향연은 역설적으로 삶, 生에의 욕동(欲動)을 의미한다. 모든 이들의 삶이 사실 누군가의 죽음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면[22] 〈취연전〉은 연속된 죽음 끝에 태어난 아기를 통해 모성과 함께 생명에의 욕동을 드러내는 서사인 것이다. 취연은 순종적으로만 그려졌던 선한 가정소설의 여주인공 양상을 벗어나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냉정하게 현실에 맞서 굳건히 자식을 지키는 어머니로서 모성과 생의 욕동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5 결론

〈취연전〉은 가정소설의 두 갈등 양상이 중첩되어 있어 여성 수난이 강조되고 권선징악의 주제가 부각되는 작품, 그래서 도리어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작품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욕망하는 주체 취연은 문제를

22 정명환, 「철학·문학 그리고 잔혹성: 리처드 로티의 『우연성, 아이러니 그리고 연대성』에 대하여」, 『문학과사회』 9권 2호, 문학과지성사, 1996, 851쪽.

해결하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지 못한 잠재적 주체로서 대신 원조자를 문제해결의 수행적 주체로 파송하고 타인의 희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기존의 가정소설의 선한 여주인공과는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취연은 동생 경애를 속임으로써 자신에게 닥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며 자결한 뒤에는 원귀가 되어 온 동네를 폐읍에 이르게 하고도 유모 부부는 붙잡아두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자신을 의심했던 이적을 무시하기도 하고 희생하는 금연을 두고 돌아서는 모습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취연전〉은 다른 가정소설과는 차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물론 착하고 아름다운 순종적 여주인공의 상은 가정소설이라는 장르가 그동안 만들어온 시대적 이념과 가치가 만들어낸 전형이자 고유명사화된 신화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취연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가부장제 사회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 선과 악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넘어 보다 본질적인 생의 문제와 자식을 위해 끝내 살아남는 강인한 모성의 인물이다.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인생에서 여인들의 모성을 바탕으로 한 강인한 생명력의 욕동이 한편으로는 잔혹하게 그려진 것이 바로 〈취연전〉이다. 가정소설의 다양한 갈등의 변주를 통해 흥미성과 대중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죽음에서 부활한 취연과 바로 그 죽음의 공간과 같은 땅속에 파묻힌 뒤주에서 태어난 아기를 통해 잔혹한 죽음의 연쇄를 끊어내는 생의 욕동을 드러내는 것이다.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고 사랑을 받았던 것은 일어한 대중성과 함께 잔혹한 현실 속에서도 끝내 이겨내고 부활하는 취연의 강인한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미학은 미에 관한 학문으로 이해되어 왔다. 과거 미의 본질은 조화롭고 균형 잡힌 형식에 있었으며 로고스적 사고방식에 의한 코스모스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였다.[23] 유교적 가치관이 아름답게 실현된 될 때, 그것이 바로 코스모스적인 세계이며 윤리적 가치의 실현에서 미를 찾았다. 하지만 더욱 엄혹한 현실 속에서 문학은 기존의 로고스적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더불어 울고, 웃고, 절망하고 기뻐하는 인물을 통해 새로운 아름다움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인간은 신화화된 가상의 현실이 아닌 현실의 공포와 전율을 맞닥

23 안성찬, 『숭고의 미학: 파괴와 혁신의 문화적 동력』, 유로서적, 2004, 22-24쪽.

뜨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자신과 닮은 인물을 통해 더 큰 기쁨과 환희를 체험한다. 고전적 미학의 로고스적 진리관에서 부정했던 파괴적 격정을 통해 실존의 극한으로 나아감으로써 생명의 분출과 탈아적 도취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24] 소위 디오니소스적 사고방식은 파괴와 창조, 소멸과 생성, 죽음과 생식을 반복하는 자연의 적나라한 진실, 즉 극단적 공포와 망아적 황홀을 자신 안에 구현한다.[25] 전통적인 가정소설이 유교적 가치 질서의 로고스적 진리를 구현했다면 〈취연전〉은 모성을 바탕으로 자신과 자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삶의 고양'을 달성하는 것이다.[26] 이것이 일견 매끄럽지 못한 서사적 흐름과 인물 성격의 비약적 변화마저도 하나의 텍스트로 구성해 내는 〈취연전〉의 강력한 힘이다. 이러한 모성과 생의 욕동은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초월하여 강한 울림을 줄 것이다. 멋진 남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가산의 권리와 함께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기를 욕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비록 그 자신이 능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능력을 갖춘 이들을 조종하고 그들의 도움을 통해 욕망을 성취하는 현실적인 인물, 취연이야말로, 여전히 사회적 제약이 많은 고달픈 삶이지만 자기의식이 점차 커가던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 반가운 인물이 아니었을까.

참고문헌

〈취연전〉, 金光淳 編著, 金光淳所藏 筆寫本『韓國古小說全集』74, 도서출판 박이정, 2007.

김재용,『계모형 고소설의 시학』, 집문당, 1996, 14-26쪽. 1-260쪽.

송효섭,『설화의 이해』,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8, 40-90쪽.

안성찬,『숭고의 미학: 파괴와 혁신의 문화적 동력』, 유로서적, 2004, 22-24쪽.

H. 포터 에벗 지음, 우찬제 외 옮김,『서사학 강의: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문학과지성사, 2010, 250쪽.

24 위의 책, 23쪽.

25 위의 책, 173-174쪽.

26 위의 책, 171쪽.

미케 발, 한용환 외 옮김,『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65-66쪽.
S. 리몬 케넌, 최상규 옮김,『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2003, 18쪽.
토도로프 외, 민희식 역편,「시학에 있어서의 구조주의」,『구조주의란 무엇인가』, 고려원, 1985, 166쪽.

권영호,「〈취연전〉 해제」,『윤선옥전·춘매전·취연전』, 박이정, 2014, 1-274쪽.
권영희,「여주인공의 가족 갈등에 나타나는 원조자들의 충(忠)과 그 의미: 〈정을선전〉을 중심으로」,『가족과 커뮤니티』 2,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5-43쪽.
김경숙,「〈鄭乙善傳〉 硏究: 후기 가정소설에 대한 일 고찰」,『열상고전연구』 제12집, 열상고전연구회, 1999, 171-192쪽.
김윤영,「조선조 가정소설에 나타난 개인 간의 갈등양상」,『온지논총』 17, 온지학회, 2007, 259-292쪽.
김재웅,「〈유최현전〉의 구조적 특징과 가정소설의 지평 확장」,『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79-103쪽.
박경열,「〈정을선전〉에 나타난 음모와 선인의 부정에 대한 소망」,『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논집』 제26집,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2001, 95-116쪽.
_____,「가정소설에 나타난 악인(惡人)의 형성조건과 그 의미」,『겨레어문학』 제39호, 겨레어문학회, 2007, 107-136쪽
박태상,「조선조 가정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88, 1-149쪽.
서은선,「조선시대 가족서사 문학 연구: 가족갈등과 인물유형을 중심으로」, 강남대 박사논문, 2016, 1-210쪽.
우쾌재,「조선시대 가정소설의 형성요인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89, 1-195쪽.
이성권,「가정소설의 역사적 변모와 그 의미」, 고려대 박사논문, 1998, 1-238쪽.
이승복,「처첩갈등을 통해서 본 가정소설과 가문소설의 관련양상」, 서울대 박사논문, 1995, 1-202쪽.
이원수,「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북대 박사논문, 1991, 1-242쪽.

_____, 「가정소설의 전개양상」,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1993, 317-330쪽.
이윤경, 「계모형 가정소설의 서사구조적 원리와 존재양상 연구」, 『고소설연구』 16권, 한국고소설학회, 2003, 5-43쪽.
임성래, 「〈유치현전〉고」, 『연세어문학』 17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4, 46-67쪽.
정명환, 「철학·문학 그리고 잔혹성: 리처드 로티의 『우연성, 아이러니 그리고 연대성』에 대하여」, 『문학과사회』 9권 2호, 문학과지성사, 1996, 827-863쪽.
진건화, 「가정소설에 나타난 부정(不貞)의 전략적 의미: 〈정을선전〉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60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1, 285-318쪽.
한청, 「가정소설에 나타난 음모양상 연구」, 조선대 박사논문, 2014, 1-137쪽.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Structure and the Meaning of Character's Characteristics in 〈*Chuiyeon-jeon*〉

Jung, Inhyouk

〈*Chuiyeon-jeon*〉 has often been regarded as a derivative of 〈*Jeongeulseon-jeon*〉, yet the shift in narrative focus from a male protagonist to a female one raises quest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works. This issue is particularly significant given the unique narrative structure of 〈*Chuiyeon-jeon*〉, which intertwines two types of familial conflicts typical of domestic novels: the conflict between a stepmother and her stepchildren, and the conflict between a first wife and a concubine. These conflicts are central to the narrative, positioning the protagonist at the heart of the story's events. Understanding the core conflict structure within a narrative allows for a deeper comprehension of 〈*Chuiyeon-jeon*〉, as well as its relationship to similar works, including 〈*Jeongeulseon-je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ignificance found in the overlap of the two conflicting aspects of domestic novels, beginning with the awareness of 〈*Chuiyeon-jeon*〉 as a narrative centered on the heroine. It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characters including the protagonist and to understand the meaning revealed in the overlapping of the two conflict patterns within the domestic novel. Furthermore, it seeks to investigate the aesthetic effects this work had on contemporary readers along with its themes.

The methodology involves analyzing the overall narrative with a focus on the actions of characters, examining how these actions reveal character traits, and identifying the narrative principles emerging from the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s. Chuiyeon, as the central figure of the narrative, desires an object in the process of problem-solving but remains a powerless presence without the practical ability to obtain it. Instead, she dispatches the original possessor to resolve the issue. In her pursuit of achieving desire, Chuiyeon overcomes crisis through the sacrifice of others. In this process, she exposes a selfish and cold dual-sided nature. This portrayal contrasts sharply with the typical protagonist of domestic novels.

Contrarily, characters in opposition to Chuiyeon function not as inherently evil beings but as "anti-subjects" competing for the same objects alongside Chuiyeon. Paradoxically, the original possessors of Chuiyeon are indirectly or directly complicit in the anti-subjects' plans, revealing their duality.

The narrative features eight deaths, with maternal themes underlying the brutal events. Despite the successive deaths, the enduring vitality and the birth of new life prevail. The appeal and affection for 〈*Chuiyeon-jeon*〉 lie in its portrayal of a new type of character who, grounded in maternal strength, overcomes cruel realities through resilience and a robust will to live. Chuiyeon, as a character, embodies a more realistic figure, being weak yet sometimes cold and selfish, contrasting with the traditionally virtuous and obedient protagonists of domestic novels.

Key words: 〈*Chuiyeon-jeon*〉, Joseon Dynasty domestic fiction, conflict between stepmother and ex-wifes child, conflict between wives, desire, sender, anti-subject, desire of life, motherhood

논문투고 / 2024.06.30.
논문접수 / 2024.07.22.
게재확정 / 2024.08.05.